

‘통념은 미신이다’

통념을 깨 버린 사례-

박중일

통념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일반적으로 사회에 널리 통용되는 개념’이라고 되어 있다. 즉 통념이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며 으레 그러려니 하는 고정적인 사고방식으로서 이러한 통념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또는 어떤 조직에나 일반적으로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통념은 어떻게 보면 더 이상의 다른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는 아주 편리한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변화나 창조 앞에서 이런 구차한 통념은 오히려 진보를 가로막는 상당한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과거, 지구가 평평하다는 통념은 그때까지만 해도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었으며 이는 결국 먼거리 항해에 불안감을 주었고, 그로 인해 신대륙 발견이 무려 15세기 말에 와서야 이루어진 점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모든 분야에서나 다 똑같겠지만, 특히 전산업무에 있어서의 신기술 개발이나 응용을 위해 이러한 통념의 틀을 과감히 벗어던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통념을 깨고 이룩한 우리 연구소의 시스템 운영에 나타났던 몇 가지 예를 들어 본다.

첫째, 79년에 도입, 설치되었던 IBM 3032 시스템(메인메모리 2MB)에 대해, 1차로 80년 3월에 메인메모리를 4MB로 확장시켰다. 이후 83년 10월에 와서 8MB로 재확장하는 과정에서 1차때와 마찬가지로 IBM으로부터 엄청난 고가의 비용이 요구되었다.

당시 비용이야 어떻든 시스템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은 으레 공급자측의 방법에 무조건 일임 하던 통념상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되었지만, 이때 성기수 소장님과 박중일 운영부장은, 확장할 메인메모리를 미국 시장에서 직접 구매할 것을 검토한 후, IBM을 거치지 않고 부가할 4MB의 메인메모리를 미국에서 직접 사다가 운영부 자체내의 기술로 해결한 바 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으며, 국내 최초로 시도되어 성공한 사례이다.

‘통념은 깨질 때 멋있다.’

둘째, 원래 IBM 장비가 타 기종 장비보다 고가인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기능은 같으면서 좀더 저렴한 타기종 장비를 IBM에 붙여 쓸 수만 있다면, 이는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 및 시스템 접속기술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일거양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역시 앞의 예에서 본 것처럼 통념상 이런 사례는 그때까지 국내에선 찾아볼 수 없었으나, 83년 입출력 장비인 라인프린터를 교체하면서 우리는 이를 Non-IBM 장비, 즉 STC 사의 프린터로 대체, 접속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그후 디스크의 교체에도 이어졌으며 이런 우리의 선례는 타기관에도 영향을 주어, 결국 한국의 PCM시장을 창출하는 한 계기가 되었다.

셋째, 위의 두번째 예에서 본 입출력 장비가 고가라고는 하지만 CPU 본체와는 그 가격면에서 감히 비교도 안된다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겠다.

85년 3월, IBM 3032 시스템의 모든 주변장비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CPU만을 떼어내 Non-IBM 장비인 NAS CPU로 교체하였으니, 이는 기존 통념상 감히 엄두도 못낼 일이었다. 물론 이 역시 국내 최초로 시도된 것이었으며, 그 당시 비용대 능비가 3배 이상 높아졌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거치면서, 이를 지켜본 IBM은 아마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SERI라면 지금도 학(?)을 떨 것이다.

이런 일들이 기존의 고정된 관념 및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었기에, 여기서 우리는 통념이라는 것이 한없이 고루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시간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의 통념 탈피는 더더욱 쉽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있었던 한 예를 더 들어본다.

82년 7.3조치에서 발표된 실명제 시스템 개발에 의해 우리 연구소에서 당시 엄청난 양(약 3천 7백만건)의 데이터를, 83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불과 4개월여에 걸쳐 데이터 입력을 마쳐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당시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30여대의 키엔트리 머신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선 당장 약 100대분의 장비가 더 필요했다. 그러나 국내에 그만한 대수의 유휴장비는 없었고, 그러자니 외국에서 장비를 도입하여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절차상, 시간상 거의 불가능했었다.

이에 운영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해냈으니, 그것은 바로 「키 엔트리 시스템」을 당시 보급됐던 8 비트 PC(스포트라이트)에 개발하여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결국 성공을 거두었고 주어진 기간내에 모든 데이터 입력을 마칠 수 있었다. 데이터 입력은 키편치로 해왔던 당시의 통념을 과감히 벗어나지 않고서는 이끌어 낼 수 없었던 큰 개개의 하나였다. 특히 당시엔 교육용 정도로나 이용하던 8 비트급 PC를 실제 업무용으로 활용하여 성공한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이러한 일들은 성기수 박사님의 업무 추진력 및 기존 통념에 따르지 않는 과단성의 한 단면을 유감 없이 보여준 것이며 또한 부하직원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일을 믿고 맡기는 성 박사님의 탁월한 경영철학을 보여준 것이기도 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통념이란,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선 과감히 벗어던질 필요가 있는 것이기에, 지금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통념에 사로잡혀 진부한 방식으로 모든 문제해결을 바라보고는 있지 않나 하는 자기통찰의 기회를 가져 봄직도 하겠다.

‘통념은 미신이다.’